

2024 안성시 청소년 연구

안성시 청소년 언어문화조사 보고서

안성시 청소년 언어 문화 조사

<제목 차례>

I. 조사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11
3. 조사 개요 및 내용	11
(1) 조사 개요	11
(2) 조사 내용	12
II. 조사 결과	13
1. 응답자 특성	13
(1) 성별	13
(2) 나이	13
(3) 거주지역	14
(4) 가족유형	14
2. 욕설 사용 및 인식	15
(1)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15
(2) 자신의 언어생활	17
(3) 하루 욕설 사용량	18
(4) 욕설 처음 사용 시기	20
(5) 평소 사용하는 욕설	22
(6) 욕설 사용 상황	23
(7) 욕설 뜻을 알고 사용하는 유무	24
(8) 욕설 습득 경로	24

(9) 욕설 사용 이유	25
3. 욕설 사용 후의 인식	26
(1) 욕설 들은 상대방 반응	26
(2) 욕설 사용 후 본인 느낌	26
(3) 욕설을 들을 때 느낌	28
(4) 사용하면 안되는 욕설	29
(5) 언어습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30
(6)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 사항	31
(7) 부모님의 욕설 사용과 양육 태도	32
(8)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33
(9)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에 영향 받음	35
(10)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35
4.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대안	36
(1)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36
(2)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36
(3) 욕설 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37
5. 평상시 듣고 싶은 말	38
(1) 평상시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38
(2) 평상시 가족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	39
(3) 평상시 선생님께서로부터 듣고 싶은 말	40
(4) 청소년 언어문화와 관련된 개인적 의견	41
Ⅲ. 요약 및 제언	43
1, 요약	43
(1) 응답자 특성	43

(2) 욕설 사용 및 인식	43
(3) 욕설 사용 후의 인식	43
(4) 청소년 언어습관의 우려사항	43
(5)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의 필요성	44
(6) 청소년이 선호하는 언어 표현	44
(7)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	44
2. 제언	44
(1) 교육 및 캠페인 강화	44
(2) 가정과 학교의 역할 강화	44
(3) 또래 문화 개선	45
(4) 심리적 지원 및 스트레스 관리	45
(5) 온라인 언어 문화 개선	45
(6) 지역 사회 협력	45
(7)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5
(8) 가족 및 교사의 역할 강화	45
(9)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 유도	46
(10). 사회적 규범 강화	46
참고문헌	46
부록1) 설문지	47
부록2) 통계표	54

<표 차례>

<표 1> 조사 개요	11
<표 2> 조사 내용	12
<표 3> 성별	13
<표 4> 나이	13
<표 5> 거주지역	14
<표 6> 가족유형	14
<표 7> 가족유형	15
<표 8>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15
<표 9> 성별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16
<표 10> 자신의 언어생활	17
<표 11> 연령대별 자신의 언어생활	17
<표 12> 하루 욕설 사용량	18
<표 13> 성별 하루 욕설 사용량	19
<표 14> 욕설 처음 사용 시기	20
<표 15> 연령대별 욕설 처음 사용 시기	21
<표 16> 평소 사용하는 욕설	22
<표 17> 욕설 사용 상황	23
<표 18> 욕설 뜻을 알고 사용하는 유무	24
<표 19> 욕설 습득 경로	24
<표 20> 욕설 사용 이유	25
<표 21> 욕설 들은 상대방 반응	26
<표 22> 욕설 사용 후 본인 느낌	26
<표 23> 독자 유무별 욕설 사용 후 느낌	27
<표 24> 친구로부터 욕설 들을 때 느낌	28
<표 25> 친구 외 다른 사람으로 욕설들을 때 느낌	28

<표 26> 사용하면 안되는 욕설	29
<표 27> 언어습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30
<표 28>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 사항	31
<표 29> 청소년 언어 습관과 관련 우려 사항	31
<표 30> 부모님의 양육 태도	32
<표 31> 부모님께 욕설, 비속어 들은 경험	32
<표 32>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말	33
<표 33>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33
<표 34> 선생님께 욕설 들을 때 마음	34
<표 35> 수업 중 선생님이 사용하면 좋은 말	34
<표 36>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에 영향 받음	35
<표 37>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35
<표 38>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36
<표 39>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36
<표 40> 욕설 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37

<그림 차례>

[그림 1] 평상시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38
[그림 2] 평상시 가족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39
[그림 3] 평상시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40

I. 조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한다(장은애·정현희, 2022).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특히 비속어와 욕설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정선 외, 2013; 이정기·우형진, 2011).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은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속어와 욕설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언어 사용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빈번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개인적 문제: 욕설 사용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회적 문제: 비속어와 욕설의 확산은 청소년들 간의 관계 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학교와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 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언어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교육적 문제: 비속어 사용은 언어 표현력과 사고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정, 학교, 친구 관계, 미디어 등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욕설과 비속어 사용은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속감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비속어에 더 쉽게 노출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장이며, 이 과정에서 언어사용의 특성이 반영되는 곳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 특히 비속어와 욕설 사용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언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조사 개요 및 내용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가 응답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 97명
조사 기간	2024년 11월 12일 ~ 11월 22일
조사 방법	이용자 리스트에 링크 발송한 구글 설문지를 통한 자가 응답 조사
분석 방법	구글데이터 변환 후 SPSS를 이용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복수응답 빈도분석 등을 수행.

(2)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응답자 특성, 욕설 사용 및 인식, 욕설 사용 후 인식,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대안, 평상시 듣고 싶은 말 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족유형.
욕설 사용 및 인식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자신의 언어생활, 하루 욕설 사용량, 욕설 처음 사용 시기, 평소 사용하는 욕설, 욕설 사용 상황, 욕설 뜻을 알고 사용하는 유무, 욕설 습득 경로, 욕설 사용 이유
욕설 사용 후 인식	욕설 들은 상대방 반응, 욕설 사용 후 본인 느낌, 욕설을 들을 때 느낌(친구로부터 들을 때, 친구 외 다른 사람에게 들을 때), 사용하면 안되는 욕설, 언어습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 사항, 부모님의 욕설 사용과 양육 태도,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에 영향 받음,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대안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욕설 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평상시 듣고 싶은 말	평상시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평상시 가족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 평상시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청소년 언어문화와 관련된 개인적 의견

Ⅱ.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1) 성별

<표 3> 성별

	빈도	백분율
청소년	39	40.2
청소년녀	58	59.8
합계	97	100.0

응답한 청소년의 성별은 청소년녀가 59.8%, 청소년이 40.2%이었다.

(2) 나이

<표 4> 나이

	빈도	백분율
11세	18	18.6
12세	25	25.8
13세	8	8.2
14세	14	14.4
15세	11	11.3
16세	9	9.3
17세	5	5.2
18세	7	7.2
합계	97	100.0

응답자 연령을 살펴보면, 11세부터 18세까지 응답하였다. 이 중 12세가 25.8%로 가장 많았으며, 11세가 18.6%, 14세가 14.4%, 15세가 11.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2.6%가 13세 이하였다. 평균 연령은 13.59세(표준편차 2.183)이었다.

(3) 거주지역

<표 5> 거주지역

	빈도	백분율
공도읍	9	9.3
대덕면	1	1.0
삼죽면	4	4.1
안성3동	1	1.0
일죽면	5	5.2
죽산면	77	79.4
합계	97	100.0

응답한 청소년의 거주지역은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죽산면 거주자가 79.4%로 가장 많았으며, 공도읍이 9.3%로 나타났다.

(4) 가족유형

① 가족유형

<표 6> 가족유형

	빈도	백분율
부모 + 1인자녀	12	12.4
부모 + 다인자녀	50	51.5
한부모 + 1인자녀	4	4.1
한부모 + 다인자녀	5	5.2
3대 + 1인자녀	7	7.2
3대 + 다인자녀	14	14.4
조손가구	5	5.2
합계	97	100.0

가족 유형을 보면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51.5%였으며, 부모와 사는 외동 자녀인 경우도 12.4%로 나타나 전형적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이 63.9%로 가장 많았다. 조부모를 포함한 3대가 함께 사는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가 14.4%, 외동 자녀인 경우가 7.2%로 나타나 21.6%가 3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한부모 가족은 총 9.3%, 조손가구는 5.2%로 나타났다.

② 외동 자녀 유무

<표 7> 가족유형

	빈도	백분율
외동(독자)	23	23.7
다자녀	74	76.3
합계	97	100.0

응답자 중 외동(독자)인 경우가 23.7%이었으며, 76.3%는 형제자매가 1명 이상 있는 다자녀로 나타났다.

2. 욕설 사용 및 인식

(1)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①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표 8>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빈도	백분율
있다	57	58.8
없다	19	19.6
잘 모름	21	21.6
합계	97	100.0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58.8%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없다는 19.6%로 상대적으로 낮아 절반 이상이 언어 사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② 성별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표 9> 성별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

	청소년	청소년녀	전체
있다	19	38	57
	48.7%	65.5%	58.8%
없다	13	6	19
	33.3%	10.3%	19.6%
잘 모름	7	14	21
	17.9%	24.1%	21.6%
전체	39	58	97
	100.0%	100.0%	100.0%

$\chi^2 = 7.824, df = 2, p < 0.05$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의 경우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¹⁾ 친구들의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경우 청소년이 48.7%이며, 청소년녀가 65.5%로 나타나 청소년녀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잘 모름의 경우도 청소년녀가 24.1%로 청소년의 17.9%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없다는 응답은 청소년이 33.3%로 나타나 청소년녀의 10.3%보다 높게 나타나 남녀간 차이가 있었다.

1) 성별, 연령대별, 가족유형별 등에 따른 차이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제시하지 않았다.

(2) 자신의 언어생활

① 자신의 언어생활

<표 10> 자신의 언어생활

	빈도	백분율
문제 없다	34	35.1
조금 문제있다	56	57.7
매우 문제 많다	7	7.2
합계	97	100.0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생활에 대한 인식으로 문제 없다는 응답은 35.1%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조금 문제있다는 인식은 57.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문제가 많다는 응답은 7.2%였다.

② 연령대별 자신의 언어생활

<표 11> 연령대별 자신의 언어생활

	연령대		전체
	13세 이하	14세 이상	
문제 없다	23	11	34
	45.1%	23.9%	35.1%
조금 문제있다	27	29	56
	52.9%	63.0%	57.7%
매우 문제 많다	1	6	7
	2.0%	13.0%	7.2%
전체	51	46	97
	100.0%	100.0%	100.0%

$$\chi^2 = 7.641, df = 2, p < 0.05$$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생활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문제 없다는 인식이 경우 13세 이하가 45.1%

로 비교적 높았으나 14세 이상은 2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매우 문제 많은 응답은 14세 이상이 13.0%였으나, 13세 이하는 2.0%에 불과하였다.

(3) 하루 욕설 사용량

① 하루 욕설 사용량

<표 12> 하루 욕설 사용량

	빈도	백분율
전혀 사용하지 않음	16	16.5
5회 이내	43	44.3
10회 이내	16	16.5
20회 이내	12	12.4
셀 수 없음	10	10.3
합계	97	100.0

본인의 하루 욕설 사용량의 경우 16.5%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5회 이내 응답자는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10회 이내는 16.5%, 20회 이내는 12.4%로 점차 낮아졌다. 셀수 없다는 응답도 10.3%로 나타났다.

② 성별 하루 욕설 사용량

<표 13> 성별 하루 욕설 사용량

	성별		전체
	청소년	청소년	
전혀 사용하지 않음	6	10	16
	15.4%	17.2%	16.5%
5회 이내	21	22	43
	53.8%	37.9%	44.3%
10회 이내	9	7	16
	23.1%	12.1%	16.5%
20회 이내	3	9	12
	7.7%	15.5%	12.4%
셀 수 없음	0	10	10
	.0%	17.2%	10.3%
전체	39	58	97
	100.0%	100.0%	100.0%

$\chi^2 = 10.973, df = 4, p < 0.05$

하루 욕설 사용량은 성별에 있어서만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전혀 사용하지 않음의 경우 청소년이 15.4%, 청소년이 17.2%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5회 이내의 경우 청소년이 53.8%로 절반이 넘었으나 청소년의 경우 37.9%로 크게 낮았다. 10회 이내의 경우도 청소년이 23.1%로 청소년의 12.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셀 수 없다는 응답은 청소년이 0%인 반면, 청소년의 경우 17.2%나 되어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회 이내도 청소년이 15.5%로 나타나 청소년의 7.7%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욕설 처음 사용 시기

① 욕설 처음 사용 시기

<표 14> 욕설 처음 사용 시기

	빈도	백분율
초등학교 입학 전	2	2.1
초등학교 저학년	19	19.6
초등학교 고학년	52	53.6
중학교	12	12.4
기억나지 않음	12	12.4
합계	97	100.0

욕설을 처음 사용한 시기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19.6%로 나타나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응답자가 73.2%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부터 사용은 12.4%이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도 12.4%였다.

② 연령대별 욕설 처음 사용 시기

<표 15> 연령대별 욕설 처음 사용 시기

	연령대		전체
	13세 이하	14세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	1	1	2
	2.0%	2.2%	2.1%
초등학교 저학년	14	5	19
	27.5%	10.9%	19.6%
초등학교 고학년	30	22	52
	58.8%	47.8%	53.6%
중학교	0	12	12
	.0%	26.1%	12.4%
기억나지 않음	6	6	12
	11.8%	13.0%	12.4%
전체	51	46	97
	100.0%	100.0%	100.0%

$\chi^2 = 17.282, df = 4, p < 0.01$

연령대별 욕설 처음 사용 시기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13세 이하 응답자 중 58.8%가 응답하였으나, 14세 이상 중에는 47.8%로 다소 낮았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13세 이하는 27.5%였으나 14세 이상은 10.9%로 다소 낮았다. 반면에 중학교 때부터라는 응답의 경우 14세 이상에서 26.1%였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 특성상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다.

(5) 평소 사용하는 욕설

<표 16> 평소 사용하는 욕설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미친 계열	63	10.8%	64.9%
존나 계열	59	10.2%	60.8%
개 계열	57	9.8%	58.8%
씨발 계열	56	9.6%	57.7%
지랄 계열	51	8.8%	52.6%
씨	42	7.2%	43.3%
병신 계열	38	6.5%	39.2%
빡치다	34	5.9%	35.1%
구라	34	5.9%	35.1%
뒤지다	21	3.6%	21.6%
쌍 계열	20	3.4%	20.6%
닥치다	19	3.3%	19.6%
쓰레기 계열	14	2.4%	14.4%
쪽팔리다	11	1.9%	11.3%
엠창 계열	9	1.5%	9.3%
무개념 계열	8	1.4%	8.2%
띠껍다	8	1.4%	8.2%
씹다	8	1.4%	8.2%
생까다 계열	7	1.2%	7.2%
니츠팔로마(욕)	6	1.0%	6.2%
니미	6	1.0%	6.2%
야리다	5	.9%	5.2%
기타	5	.9%	5.2%
합계	581	100.0%	599.0%

평소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의 경우 97명이 581개를 응답하여 1인당 평균 5.99개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는 미친 계열(새끼, 놈, 년…)로 전체 응답자의 64.9%가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존나 계열(졸라, 존젠, 좆밥, 좆나…)이 60.8%로 나타났으며, 개 계열(새끼, 같은, 놈…)이 58.8%, 씨발 계열(십팔, 씨팔, 씹…)이 57.7%, 지랄 계열(개지랄, 지랄염병…)이 52.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로 나타났다. 또한 씨가 43.3%, 병신 계열(붕산, 등신…)이 39.2%, 빠치다 및 구라가 각각 35.1%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욕설 및 비속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욕설 사용 상황

<표 17> 욕설 사용 상황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친구들과 대화할 때	80	44.2%	82.5%
후배와 대화할 때	7	3.9%	7.2%
선배와 대화할 때	4	2.2%	4.1%
어른들과 대화할 때	1	.6%	1.0%
혼자 있을 때 혼자말	27	14.9%	27.8%
문자 메시지 보낼 때	8	4.4%	8.2%
친구와 인터넷 채팅 때	34	18.8%	35.1%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 때	5	2.8%	5.2%
인터넷 게시판 글 올리거나 댓글 달 때	7	3.9%	7.2%
기타	8	4.4%	8.2%
합계	181	100.0%	186.6%

욕설을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97명이 181개를 응답하여 1인당 평균 1.87개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황의 경우 친구들과 대화할 때로 82.5%가 응답하여 거의 대

부분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할 때로 35.1%로 나타나 대부분 친구들과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있을 때 혼자말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27.8%나 되어 자신의 감정을 욕설로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욕설 뜻을 알고 사용하는 유무

<표 18> 욕설 뜻을 알고 사용하는 유무

	빈도	백분율
알고 사용한다	43	44.3
잘 모르고 사용한다	54	55.7
합계	97	100.0

욕설의 뜻을 알고 사용하는지의 유무를 살펴보면, 55.7%는 잘 모르고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사용한다는 응답은 44.3%로 나타났다.

(8) 욕설 습득 경로

<표 19> 욕설 습득 경로

	빈도	백분율
친구	59	60.8
인터넷 매체	23	23.7
형제, 자매	5	5.2
부모님	4	4.1
선배	5	5.2
TV, 영화, 신문 등	1	1.0
합계	97	100.0

욕설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매체가 23.7%, 선배 및 형제와 자매가 각각 5.2%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의 영향은 1.0%에 불과하였다.

(9) 욕설 사용 이유

<표 20> 욕설 사용 이유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습관적으로	39	20.1%	40.2%
화가 나서	44	22.7%	45.4%
스트레스 때문에	30	15.5%	30.9%
친근감의 표시로	17	8.8%	17.5%
괜히 짜증나서	15	7.7%	15.5%
남들이 사용하니까	11	5.7%	11.3%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	4	2.1%	4.1%
친구들이 다 쓰기 때문에	14	7.2%	14.4%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려	3	1.5%	3.1%
의사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	13	6.7%	13.4%
기타	4	2.1%	4.1%
합계	194	100.0%	200.0%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97명이 194개를 응답하여 1인당 평균 2.0개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 사용 이유로 가장 응답자가 많은 것은 화가 나서로 45.4%로 나타났다. 또한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40.2%나 되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30.9%나 되었다. 그 외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사용한다가 17.5%, 괜히 짜증나서가 15.5%, 친구들이 다 쓰기 때문에 14.4%, 의사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13.4% 순으로 나타났다.

3. 욕설 사용 후의 인식

(1) 욕설 들은 상대방 반응

<표 21> 욕설 들은 상대방 반응

	빈도	백분율
나와 비슷한 욕설을 했다	42	43.3
나보다 심한 욕설을 했다	13	13.4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21	21.6
친근감을 표시했다	15	15.5
욕설하지 말라 충고했다	6	6.2
합계	97	100.0

욕설을 사용할 경우, 욕설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나와 비슷한 욕설을 했다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가 21.6%, 친근감을 표시하였다가 15.5% 순으로 나타났다.

(2) 욕설 사용 후 본인 느낌

① 욕설 사용 후 본인 느낌

<표 22> 욕설 사용 후 본인 느낌

	빈도	백분율
별 느낌이 없다	42	43.3
마음이 후련하다	7	7.2
조금 부끄럽지만 잊어버린다	11	11.3
후회스럽다	14	14.4
상대방에 미안한 느낌이였다	23	23.7
합계	97	100.0

욕설을 사용한 후 본인이 느낀 점은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43.3%나 되었다. 반면에 상대방에 미안한 느낌이었다가 23.7%, 후회스럽다가 14.4% 순으로 나타났다.

② 독자 유무별 욕설 사용 후 느낌

<표 23> 독자 유무별 욕설 사용 후 느낌

	가족유형- 독자유무		전체
	독자	다자녀	
별 느낌이 없다	10	32	42
	43.5%	43.2%	43.3%
마음이 후련하다	5	2	7
	21.7%	2.7%	7.2%
조금 부끄럽지만 잊어버린다	1	10	11
	4.3%	13.5%	11.3%
후회스럽다	1	13	14
	4.3%	17.6%	14.4%
상대방에 미안한 느낌이었다	6	17	23
	26.1%	23.0%	23.7%
전체	23	74	97
	100.0%	100.0%	100.0%

$\chi^2 = 12.308, df = 4, p < 0.05$

가족유형의 독자 유무별 욕설 사용 후 느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은 응답자가 독자이거나 다자녀이거나 상관없이 유사한 비율이었다. 마음이 후련하다는 응답은 독자가 21.7%로 다자녀의 2.7%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에 후회스럽다는 반응은 다자녀 응답자가 17.6%로 나타나 독자 응답자의 4.3%보다 높았으며, 조금 부끄럽지만 잊어버린다는 응답도 다자녀 응답자가 13.5%로 나타나 독자 응답자의 4.3%보다 높았다.

(3) 욕설을 들을 때 느낌

① 친구로부터 욕설 들을 때 느낌

<표 24> 친구로부터 욕설 들을 때 느낌

	빈도	백분율
별 느낌이 없다	38	39.2
친근감이 느껴진다	10	10.3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31	32.0
기분이 나쁘다	18	18.6
합계	97	100.0

욕설을 들을 때 느낌 중 친구로부터 욕설을 들을 때는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39.25%나 되었으며,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응답도 10.3%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는 32.0%로 나타났으며, 기분이 나쁘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② 친구 외 다른 사람으로 욕설들을 때 느낌

<표 25> 친구 외 다른 사람으로 욕설들을 때 느낌

	빈도	백분율
별 느낌이 없다	20	20.6
친근감이 느껴진다	3	3.1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25	25.8
기분이 나쁘다	49	50.5
합계	97	100.0

친구 외 다른 사람으로 욕설을 들을 때 느낌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50.5%나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가 25.8%로 나타나 기분이 나쁜 부정적인 응답이 76.3%나 되었다. 반면에 별 느낌이 없다는 20.6%로 나타났으며,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하였다.

(4) 사용하면 안되는 욕설

<표 26> 사용하면 안되는 욕설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씨발 계열	59	10.3%	60.8%
병신 계열	58	10.1%	59.8%
지랄 계열	46	8.0%	47.4%
개 계열	45	7.8%	46.4%
존나 계열	44	7.7%	45.4%
니미	34	5.9%	35.1%
엠창 계열	33	5.7%	34.0%
미친 계열	29	5.1%	29.9%
쌍 계열	28	4.9%	28.9%
뒤지다	20	3.5%	20.6%
구라	19	3.3%	19.6%
닥치다	18	3.1%	18.6%
빡치다	17	3.0%	17.5%
쓰레기 계열	17	3.0%	17.5%
무개념 계열	17	3.0%	17.5%
씨	16	2.8%	16.5%
니츠팔로마(욕)	16	2.8%	16.5%
씹다	14	2.4%	14.4%
야리다	13	2.3%	13.4%
기타	10	1.7%	10.3%
생까다 계열	7	1.2%	07.2%
띠깍다	7	1.2%	07.2%
쪽팔리다	7	1.2%	07.2%
합계	574	100.0%	591.8%

본인이나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욕설 중에 쓰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욕설에 대하여 97명이 574개를 응답하여 1인당 평균 5.92개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씨발 계열(십팔, 씨팔, 씹…)으로 응답자의 60.8%로 나타났다. 또한 병신 계열(붕신, 등신…)도 59.8%로 절반 이상이 사용하면 안될 욕설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지랄 계열(개지랄, 지랄염병…)이 47.4%, 개 계열(새끼, 같은, 놈…)이 46.4%, 존나 계열(졸라, 조낸, 좆밥, 좆나…)이 45.4% 순으로 나타났다.

(5) 언어습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27> 언어습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26	26.8
대체로 그렇다	35	36.1
별로 그렇지 않다	21	21.6
전혀 그렇지 않다	3	3.1
모름	12	12.4
합계	97	100.0

언어습관이 본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36.1%, 매우 그렇다는 26.8%로 나타나 62.9%가 언어습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1.6%, 전혀 그렇지 않다는 3.1%로 24.7%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모른다는 응답은 12.4%였다.

(6)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 사항

①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 사항

<표 28>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 사항

	빈도	백분율
청소년들 비속어 신조어 사용	67	69.1
가정 내 언어폭력	11	11.3
외래어 외국어 사용	2	2.1
언론 방송의 저속한 표현	9	9.3
사회지도층 막말 사용	6	6.2
기타	2	2.1
합계	97	100.0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상황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비속어, 신조어 사용이 6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 내 언어폭력이 11.3%, 언론 방송의 저속한 표현이 9.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와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가 각 1명씩 있었다.

② 청소년 언어 습관과 관련 우려 사항

<표 29> 청소년 언어 습관과 관련 우려 사항

	빈도	백분율
우려 없다	17	17.5
해당 언어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 생김	11	11.3
다른 세대와 소통 안됨	9	9.3
올바른 한글 익히기 어려움	14	14.4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	44	45.4
기타	2	2.1
합계	97	100.0

청소년 언어 습관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우려가 없다는 응답도 1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올바른 한글 익히기 어려움이 14.4%, 해당 언어를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이 생김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7) 부모님의 욕설 사용과 양육 태도

① 부모님의 양육 태도

<표 30> 부모님의 양육 태도

	빈도	백분율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심	31	32.0
내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 주심	51	52.6
부모님 말씀을 따르도록 강요함	15	15.5
합계	97	100.0

부모님의 양육 태도의 경우 내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 주심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심도 32.0%로 나타나 자녀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84.6%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님 말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15.5%로 나타났다.

② 부모님께 욕설, 비속어 들은 경험

<표 31> 부모님께 욕설, 비속어 들은 경험

	빈도	백분율
듣지 못했다	44	45.4
가끔 듣는다	45	46.4
자주 듣는다	8	8.2
합계	97	100.0

부모님께 욕설, 비속어를 들은 경험의 경우 자주 듣는다는 8.2%에 불과하였다. 가끔 듣는다가 46.4%이었다. 반면에 듣지 못했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③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말

<표 32>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말

	빈도	백분율
존댓말	20	20.6
반말	29	29.9
존댓말, 반말 모두	48	49.5
합계	97	100.0

응답자가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말은 존댓말과 반말 모두 사용한다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반말이 29.9%로 나타나 반말을 하는 경험은 79.4%나 되었다. 반면에 존댓말만 사용하는 경우는 20.6%였다.

(8)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①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표 33>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빈도	백분율
듣지 못했다	72	74.2
가끔 듣는다	21	21.6
자주 듣는다	4	4.1
합계	97	100.0

선생님께 욕설을 들은 경험의 경우 74.2%가 듣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가끔 듣는다는 21.6%였으며, 자주 듣는다는 4.1%에 불과하였다.

② 선생님께 욕설 들을 때 마음²⁾

<표 34> 선생님께 욕설 들을 때 마음

	빈도	백분율
나도 속으로 욕한다	4	16.0
선생님 입장이 이해된다	7	28.0
선생님은 욕설하지 말아야 한다	4	16.0
별 생각이 없다	10	40.0
합계	25	100.0

선생님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25명의 경우 선생님께 욕설을 들을 때 마음의 경우 별 생각이 없다가 40.0%, 선생님 입장이 이해된다가 28.0%로 높은 비율이었다.

③ 수업 중 선생님이 사용하면 좋은 말

<표 35> 수업 중 선생님이 사용하면 좋은 말

	빈도	백분율
존댓말	25	26.6
반말	10	10.6
상관없다	50	53.2
잘 모르겠다	9	9.6
합계	94	100.0

수업 중 선생님이 사용하면 좋은 말에 대하여 상관없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다. 존댓말을 쓰면 좋다는 의견은 26.6%이었으며, 반말을 쓰면 좋다는 응답도 10.6%였다.

2) 선생님께 욕설을 들은 경험 중 듣지 못했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가끔+자주 듣는다는 응답자만 선택해 분석한 결과이다. 다만, 선생님께 욕설 들을 때 마음의 차이는 선생님의 욕설 들을 경험과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9)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에 영향 받음

<표 36>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에 영향 받음

	빈도	백분율
예	56	57.7
아니오	41	42.3
합계	97	100.0

본인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투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하여 57.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42.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10)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표 37>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빈도	백분율
있다	31	32.0
없다	35	36.1
잘 모르겠다	31	32.0
합계	97	100.0

가정이나 학교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욕설에 대해 충고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6.1%, 있다는 응답이 32.0%였다. 잘 모르겠다도 32.0%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4.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대안

(1)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표 38>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빈도	백분율
있다	47	48.5
없다	50	51.5
합계	97	100.0

학교(또는 교육기관)에서 바른 언어 사용과 관련한 특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8.5%, 없다는 응답이 51.5%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2)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표 39>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빈도	백분율
느낀다	60	61.9
느끼지 않는다	5	5.2
잘 모르겠다	32	33.0
합계	97	100.0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느낀다는 응답이 61.9%나 되었다. 반면에 잘 모르겠다가 33.0%, 느끼지 않는다는 5.2%로 나타났다.

(3) 욕설 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표 40> 욕설 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빈도	백분율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7	7.2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다	65	67.0
어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4	4.1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결의 실행한다	3	3.1
학교에서 계획 세워 교육한다	5	5.2
국가, 사회적으로 바른말 사용 노력한다	6	6.2
언론 방송이 지속적 자정노력한다	7	7.2
합계	97	100.0

욕설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67.0%나 되어 개인 책임의식이 강하였다. 다음으로 언론 방송이 지속적으로 자정노력한다가 7.2%였는데,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도 7.2%였다. 국가, 사회적으로 바른말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6.2%였다.

(3) 평상시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그림 3] 평상시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평상시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의 경우, 잘한다, 최고야, 열심히했네, 공부할 한다, 대단해, 멋지다, 칭찬해요와 같은 인정의 욕구를 반영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없음이 많았다. 이는 관계나 기대의 단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감사의 의미나, 관심을 가져주는 힘내, 이쁘다, 긍정적인 말, 뭐 좋아해, 역시 00이야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많았다.

(4) 청소년 언어문화와 관련된 개인적 의견

청소년의 언어문화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들을 몇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긍정적 태도/조언

- 나 스스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어른들로부터 바른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언어교육이 필요함.
- 욕설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
- 욕설을 줄이도록 연습한다.
- 저도 이제부터 욕설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친구들과 욕설은 사용하지 말고 좋은 말만 사용하자.
- 욕은 쓰라고 있는 거긴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 청소년 언어 문화가 조금 거칠고 올바른 뇌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력이 욕을 안 쓰는 친구가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 신경 써서 자신의 언행을 가꾸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 좋은말.

② 부정적 경험/문제점

- 비속어는 고칠 필요가 있다.
- 욕설을 진짜 절대로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힘듭니다.
- 욕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애가 짜증나요.
- 우선 욕설도 문제지만, 패드립(부모님을 건드리는 욕설)이 심각하다고 생각.
- 남학생들이 부모님 이름을 들먹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 TV에 나오는 사람들(정치인, 연예인)이 언어를 곱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초등학교 때 욕설이 새로 생긴 줄 알았는데 오래된 것임을 알고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예의를 지켜야 하는 곳에서도 욕설을 써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과 가족을 건드리는 욕설은 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③ 기타

- 딱히.
- ○.
- 없다
- 열심히 해.
- 모르겠다.
- ㅋㅋ.
- 하하하, 욕 그만하기.
- !!.
- ???.

Ⅲ. 요약 및 제언

청소년기의 언어 습관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속어와 욕설 사용의 증가는 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와 비속어 사용의 맥락,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개선과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요약

(1) 응답자 특성

- 주요 응답자는 12~13세 청소년으로, 평균 연령은 13.59세였음.
- 대부분이 핵가족 형태로 거주하며, 죽산면 거주자가 많았음.
- 응답자의 약 24%가 독자이며, 나머지는 형제자매가 있음.

(2) 욕설 사용 및 인식

- 친구들의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비율이 58.8%로 절반을 넘었음.
-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비율은 65% 이상.
- 하루 욕설 사용량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청소년의 경우 5회 이내가 가장 많았음.
- 욕설 사용 이유로는 화나거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대화 중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욕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비율이 73.2%로 나타남.

(3) 욕설 사용 후의 인식

- 욕설 사용 후 "별 느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친구의 욕설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지만, 친구 외 다른 사람의 욕설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했음.
- 사용하는 욕설 중 "사용하면 안 되는 욕설"로 씨발 계열, 병신 계열을 가장 많이 꼽음.

(4) 청소년 언어습관의 우려사항

- 개인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언어 습관이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3%로 높음.

- 부모와 선생님의 말투는 청소년 언어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5)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의 필요성

- 약 절반의 청소년이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설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욕설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공감대가 높으나, 사회적 노력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음.

(6) 청소년이 선호하는 언어 표현

- 청소년들은 친구, 가족,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 인정과 격려, 관계를 강화하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함.
- "없음" 응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단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7)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

- 긍정적 조언 및 자기 성찰과 함께 욕설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음.
-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욕설 문제와 사회적 본보기에 대한 불만이 나타남.
- 중립적이거나 무응답으로 나타난 응답도 존재해, 일부 청소년의 관심 부족 또는 문제에 대한 거리감도 확인됨.

2. 제언

(1)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욕설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을 유도.

(2) 가정과 학교의 역할 강화

- 부모와 교사의 언어 습관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존댓말 사용을 권장하고, 욕설 사용의 부작용을 지도.
- 청소년과 대화할 때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또래 문화 개선

- 또래 그룹 내 언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욕설 사용 대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대안을 제공.

(4) 심리적 지원 및 스트레스 관리

- 욕설 사용의 주요 이유가 화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감정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제공.

(5) 온라인 언어 문화 개선

- 인터넷 매체와 온라인 환경에서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콘텐츠 규제와 캠페인 필요.
- 디지털 시민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온라인 언어 사용을 독려.

(6) 지역 사회 협력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언어 사용 개선을 위한 청소년 공감활동 및 참여활동이 필요할 것.
-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언어 문화 확산.

(7)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인 언어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의 언어 습관에 대한 자기 성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언론과 방송은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고 바른 언어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8) 가족 및 교사의 역할 강화

- 가족 간의 긍정적 언어 소통을 촉진하여 단절감을 해소하고, 인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교사는 학생들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9)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 유도

- 청소년들이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바른 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함.
- 긍정적 언어 습관 형성을 돕는 캠페인,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10). 사회적 규범 강화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국가적 캠페인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야 함.
- 욕설과 비속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정선, 이필영, 김태경, 이삼형, 장경희, 전은진(2013), 청소년의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조사, no. 140,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 이정기, 우형진(2011),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방송 비속어 노출 및 심각성 인식, 스트레스,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 55, No 2. 한국언론학회.
- 장은애, 정현희(2022), 다문화가정 초기 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잠재 프로파일과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vol 72.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부록1) 설문지

안성시 청소년 언어 문화 조사

안녕하십니까?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안성시 청소년 언어 문화 조사는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하시는 일 하나 하나에 대한 돌아봄의 시간입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오늘의 스스로의 언어 문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더 행복한 안성은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청소년 언어 문화 조사를 통해 실태에 대한 이해, 그 너머의 변화를 꿈꾸며 마음을 모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시험이 아니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이름을 쓰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통계, 분석이 마무리된 후 여러분이 남겨주신 번호로 결과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선택사항).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드림

※ 이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특성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나이	① 11세(2013년생)	② 12세(2012년생)	③ 13세(2011년생)	
	④ 14세(2010년생)	⑤ 15세(2009년생)	⑥ 16세(2008년생)	
	⑦ 17세(2007년생)	⑧ 18세(2006년생)		
안성 거주지역	① 고삼면	② 공도읍	③ 금광면	④ 대덕면
	⑤ 미양면	⑥ 보개면	⑦ 삼죽면	⑧ 서운면
	⑨ 안성1동	⑩ 안성2동	⑪ 안성3동	⑫ 양성면
	⑬ 원곡면	⑭ 일죽면	⑮ 죽산면	
동거가족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빠	④ 엄마
	⑤ 형/오빠	⑥ 누나/언니	⑦ 남동생	⑧ 여동생
	⑨ 친척	⑩ 없음		

1.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말하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 평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문제 없다 ② 조금 문제가 있다 ③ 문제가 매우 많다

3. 하루에 욕설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사용하지 않음 ② 5회 이내 ③ 10회 이내
④ 20회 이내 ⑤ 셀 수 없음

4. 욕설을 처음으로 사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② 초등학교 저학년
③ 초등학교 고학년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기억나지 않는다

5. 욕설은 언제 주로 사용하게 될까요? 해당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친구들과 대화할 때
- ② 후배와 대화할 때
- ③ 선배와 대화할 때
- ④ 어른들과 대화할 때
- ⑤ 혼자 있을 때 혼잣말로
- ⑥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 ⑦ 친구와 인터넷 채팅(메신저, DM) 할 때
- ⑧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메신저, DM)할 때
- ⑨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 ⑩ 기타

6.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습관적으로
- ② 화가 나서
- ③ 스트레스 때문에
- ④ 친근감의 표시로
- ⑤ 괜히 짜증이 나서
- ⑥ 남들이 사용하니까
- ⑦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
- ⑧ 친구들이 다 쓰기 때문에
- ⑨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 ⑩ 의사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 ⑪ 기타

7. 욕설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① 나와 비슷한 욕설을 했다
- ② 나보다 심한 욕설을 했다
- ③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 ④ 친근감을 표시했다
- ⑤ 욕설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8. 욕설을 사용하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 ① 별 느낌이 없다
- ② 마음이 후련하다
- ③ 조금 부끄럽지만 곧 잊어버린다
- ④ 후회스럽다
- ⑤ 상대방에게 미안한 느낌이었다

9. 친구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 ① 별 느낌이 없다
- ② 친근감이 느껴진다
- ③ 기분이 나쁘지만 곧 잊는다
- ④ 기분이 나쁘다

29. 평상시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써 주세요.

30. 평상시 가족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써 주세요.

31. 평상시 선생님들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써 주세요.

32. 청소년 언어 문화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게요!

휴대전화번호(010-1234-5678 형식 입력),

휴대전화번호를 남기신 분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택] 입력해주신 휴대전화번호로 '안성시 청소년 언어 문화 조사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결과 수신 동의

결과 수신 거부

[선택] 입력해주신 휴대전화번호로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시면 체크해주세요.

정보 수신 동의

정보 수신 거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안성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통계표3)

		성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나이	11	11	28.2%	7	12.1%
	12	12	30.8%	13	22.4%
	13	1	2.6%	7	12.1%
	14	6	15.4%	8	13.8%
	15	2	5.1%	9	15.5%
	16	1	2.6%	8	13.8%
	17	2	5.1%	3	5.2%
	18	4	10.3%	3	5.2%
연령대	13세 이하	24	61.5%	27	46.6%
	14세 이상	15	38.5%	31	53.4%
거주지역	공도읍	2	5.1%	7	12.1%
	대덕면	1	2.6%	0	.0%
	삼죽면	2	5.1%	2	3.4%
	안성3동	0	.0%	1	1.7%
	일죽면	3	7.7%	2	3.4%
	죽산면	31	79.5%	46	79.3%
가족유형	1인가구	0	.0%	0	.0%
	부모+1인자녀	4	10.3%	8	13.8%
	부모+다인자녀	22	56.4%	28	48.3%
	한부모+1인자녀	1	2.6%	3	5.2%
	한부모+다인자녀	1	2.6%	4	6.9%
	3대+1인자녀	2	5.1%	5	8.6%
	3대+다인자녀	7	17.9%	7	12.1%
	조손가구	2	5.1%	3	5.2%
가족유형2	독자	7	17.9%	16	27.6%
	다자녀	32	82.1%	42	72.4%
v01 친구들 언어 문제	있다	19	48.7%	38	65.5%
	없다	13	33.3%	6	10.3%
	잘 모름	7	17.9%	14	24.1%

3) \$ 표시는 복수응답 표시이다.

		성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v02 자신의 언어생활	문제 없다	16	41.0%	18	31.0%
	조금 문제있다	22	56.4%	34	58.6%
	매우 문제 많다	1	2.6%	6	10.3%
v03 하루 옥설 사용량	전혀 사용하지 않음	6	15.4%	10	17.2%
	5회 이내	21	53.8%	22	37.9%
	10회 이내	9	23.1%	7	12.1%
	20회 이내	3	7.7%	9	15.5%
	셀수 없음	0	.0%	10	17.2%
v04 옥설 처음 사용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1	2.6%	1	1.7%
	초등학교 저학년	5	12.8%	14	24.1%
	초등학교 고학년	23	59.0%	29	50.0%
	중학교	2	5.1%	10	17.2%
	고등학교	0	.0%	0	.0%
	기억나지 않음	8	20.5%	4	6.9%
\$V05 옥설 사용하는 상황	친구들과 대화 할 때	31	79.5%	49	84.5%
	후배와 대화할 때	2	5.1%	5	8.6%
	선배와 대화할 때	1	2.6%	3	5.2%
	어른들과 대화할 때	0	.0%	1	1.7%
	혼자 있을 때 혼잣말	5	12.8%	22	37.9%
	문자 메시지 보낼 때	0	.0%	8	13.8%
	친구와 인터넷 채팅 때	6	15.4%	28	48.3%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 때	2	5.1%	3	5.2%
	인터넷 게시판 글 올리거나 댓글 달 때	1	2.6%	6	10.3%
	기타	5	12.8%	3	5.2%

		성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V06 욕설 사용 이유	습관적으로	12	30.8%	27	46.6%
	화가 나서	16	41.0%	28	48.3%
	스트레스 때문에	10	25.6%	20	34.5%
	친근감의 표시로	9	23.1%	8	13.8%
	괜히 짜증나서	6	15.4%	9	15.5%
	남들이 사용하니까	1	2.6%	10	17.2%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	0	.0%	4	6.9%
	친구들이 다 쓰기 때문에	3	7.7%	11	19.0%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려	0	.0%	3	5.2%
	의사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	2	5.1%	11	19.0%
기타	3	7.7%	1	1.7%	
v07 욕설 들은 상대방 반응	나와 비슷한 욕설을 했다	15	38.5%	27	46.6%
	나보다 심한 욕설을 했다	8	20.5%	5	8.6%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8	20.5%	13	22.4%
	친근감을 표시했다	5	12.8%	10	17.2%
	욕설하지 말라 충고했다	3	7.7%	3	5.2%
v08 욕설 사용 후 느낌	별 느낌이 없다	17	43.6%	25	43.1%
	마음이 후련하다	2	5.1%	5	8.6%
	조금 부끄럽지만 잊어버린다	6	15.4%	5	8.6%
	후회스럽다	5	12.8%	9	15.5%
	상대방에 미안한 느낌이었다	9	23.1%	14	24.1%
v09 친구로부터 욕설 들을 때 느낌	별 느낌이 없다	15	38.5%	23	39.7%
	친근감이 느껴진다	2	5.1%	8	13.8%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12	30.8%	19	32.8%
	기분이 나쁘다	10	25.6%	8	13.8%
v10 친구외 다른 사람으로 욕설 들을 때 느낌	별 느낌이 없다	12	30.8%	8	13.8%
	친근감이 느껴진다	1	2.6%	2	3.4%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10	25.6%	15	25.9%
	기분이 나쁘다	16	41.0%	33	56.9%

		성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V11 평소사 용옥설	존나 계열	21	53.8%	38	65.5%
	씨발 계열	24	61.5%	32	55.2%
	개 계열	19	48.7%	38	65.5%
	병신 계열	19	48.7%	19	32.8%
	지랄 계열	17	43.6%	34	58.6%
	쌍 계열	5	12.8%	15	25.9%
	미친 계열	23	59.0%	40	69.0%
	쓰레기 계열	5	12.8%	9	15.5%
	무개념 계열	1	2.6%	7	12.1%
	생까다 계열	2	5.1%	5	8.6%
	엠창 계열	3	7.7%	6	10.3%
	쪽팔리다	2	5.1%	9	15.5%
	구라	14	35.9%	20	34.5%
	닥치다	8	20.5%	11	19.0%
	띠껍다	2	5.1%	6	10.3%
	씹다	2	5.1%	6	10.3%
	뒤지다	7	17.9%	14	24.1%
	빡치다	8	20.5%	26	44.8%
	야리다	1	2.6%	4	6.9%
	씨	13	33.3%	29	50.0%
	니미	1	2.6%	5	8.6%
니츠팔로마(욕)	0	.0%	6	10.3%	
기타	2	5.1%	3	5.2%	

		성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V12 사용하 면안되는옥설	존나 계열	12	30.8%	32	55.2%
	씨발 계열	21	53.8%	38	65.5%
	개 계열	16	41.0%	29	50.0%
	병신 계열	22	56.4%	36	62.1%
	지랄 계열	15	38.5%	31	53.4%
	쌍 계열	10	25.6%	18	31.0%
	미친 계열	13	33.3%	16	27.6%
	쓰레기 계열	8	20.5%	9	15.5%
	무개념 계열	9	23.1%	8	13.8%
	생까다 계열	4	10.3%	3	5.2%
	엠창 계열	17	43.6%	16	27.6%
	쪽팔리다	2	5.1%	5	8.6%
	구라	8	20.5%	11	19.0%
	닥치다	7	17.9%	11	19.0%
	띠껍다	3	7.7%	4	6.9%
	씹다	6	15.4%	8	13.8%
	뒤지다	7	17.9%	13	22.4%
	빡치다	5	12.8%	12	20.7%
	야리다	7	17.9%	6	10.3%
	씨	6	15.4%	10	17.2%
니미	14	35.9%	20	34.5%	
니츠팔로마(욕)	7	17.9%	9	15.5%	
기타	3	7.7%	7	12.1%	
v13 옥설 뜻 을 알고 사용 하는 유무	알고 사용한다	21	53.8%	22	37.9%
	잘 모르고 사용한다	18	46.2%	36	62.1%
v14 옥설 습 득 경로	친구	24	61.5%	35	60.3%
	인터넷 매체	8	20.5%	15	25.9%
	형제, 자매	4	10.3%	1	1.7%
	부모님	1	2.6%	3	5.2%
	선배	2	5.1%	3	5.2%
	TV, 영화, 신문 등	0	.0%	1	1.7%

		성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v15 언어습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매우 그렇다	13	33.3%	13	22.4%
	대체로 그렇다	11	28.2%	24	41.4%
	별로 그렇지 않다	11	28.2%	10	17.2%
	전혀 그렇지 않다	1	2.6%	2	3.4%
	모름	3	7.7%	9	15.5%
v16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사항	청소년들 비속어 신조어 사용	28	71.8%	39	67.2%
	가정 내 언어폭력	5	12.8%	6	10.3%
	외래어 외국어 사용	1	2.6%	1	1.7%
	언론 방송의 지속한 표현	2	5.1%	7	12.1%
	사회지도층 막말 사용	2	5.1%	4	6.9%
기타	1	2.6%	1	1.7%	
v17 청소년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사항	우려 없다	8	20.5%	9	15.5%
	해당 언어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 생김	7	17.9%	4	6.9%
	다른 세대와 소통 안됨	3	7.7%	6	10.3%
	올바른 한글 익히기 어려움	6	15.4%	8	13.8%
	개인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	13	33.3%	31	53.4%
기타	2	5.1%	0	.0%	
v18 부모님의 양육 태도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심	10	25.6%	21	36.2%
	내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주심	24	61.5%	27	46.6%
	부모님 말씀을 따르도록 강요함	5	12.8%	10	17.2%
v19 부모님께 욕설, 비속어 들은 경험	듣지 못했다	21	53.8%	23	39.7%
	가끔 듣는다	18	46.2%	27	46.6%
	자주 듣는다	0	.0%	8	13.8%
v20 부모님에 사용하는 말	존댓말	11	28.2%	9	15.5%
	반말	5	12.8%	24	41.4%
	존댓말, 반말 모두	23	59.0%	25	43.1%
v21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듣지 못했다	29	74.4%	43	74.1%
	가끔 듣는다	8	20.5%	13	22.4%
	자주 듣는다	2	5.1%	2	3.4%

		성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v22 선생님께 욕설 들을 때 마음	나도 속으로 욕한다	4	12.1%	6	14.3%
	선생님 입장이 이해된다	4	12.1%	10	23.8%
	선생님은 욕설하지 말아야 한다	8	24.2%	13	31.0%
	별 생각이 없다	17	51.5%	13	31.0%
v23 수업 중 선생님이 사용하면 좋은 말	존댓말	13	35.1%	12	21.1%
	반말	4	10.8%	6	10.5%
	상관없다	17	45.9%	33	57.9%
	잘 모르겠다	3	8.1%	6	10.5%
v24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의 영향받음	예	22	56.4%	34	58.6%
	아니오	17	43.6%	24	41.4%
v25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있다	12	30.8%	19	32.8%
	없다	15	38.5%	20	34.5%
	잘 모르겠다	12	30.8%	19	32.8%
v26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있다	21	53.8%	26	44.8%
	없다	18	46.2%	32	55.2%
v27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느낀다	24	61.5%	36	62.1%
	느끼지 않는다	2	5.1%	3	5.2%
	잘 모르겠다	13	33.3%	19	32.8%
v28 욕설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2	5.1%	5	8.6%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다	31	79.5%	34	58.6%
	어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0	.0%	4	6.9%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결의 실행한다	1	2.6%	2	3.4%
	학교에서 계획 세워 교육한다	2	5.1%	3	5.2%
	국가 사회적으로 바른말 사용 노력한다	1	2.6%	5	8.6%
	언론 방송이 지속적 자정노력한다	2	5.1%	5	8.6%

		연령대			
		13세 이하		14세 이상	
		빈도	%	빈도	%
나이	11	18	35.3%	0	.0%
	12	25	49.0%	0	.0%
	13	8	15.7%	0	.0%
	14	0	.0%	14	30.4%
	15	0	.0%	11	23.9%
	16	0	.0%	9	19.6%
	17	0	.0%	5	10.9%
	18	0	.0%	7	15.2%
연령대	13세 이하	51	100.0%	0	.0%
	14세 이상	0	.0%	46	100.0%
거주지역	공도읍	0	.0%	9	19.6%
	대덕면	0	.0%	1	2.2%
	삼죽면	0	.0%	4	8.7%
	안성3동	0	.0%	1	2.2%
	일죽면	3	5.9%	2	4.3%
	죽산면	48	94.1%	29	63.0%
가족유형	1인가구	0	.0%	0	.0%
	부모+1인자녀	5	9.8%	7	15.2%
	부모+다인자녀	27	52.9%	23	50.0%
	한부모+1인자녀	3	5.9%	1	2.2%
	한부모+다인자녀	3	5.9%	2	4.3%
	3대+1인자녀	2	3.9%	5	10.9%
	3대+다인자녀	7	13.7%	7	15.2%
	조손가구	4	7.8%	1	2.2%
가족유형2	독자	10	19.6%	13	28.3%
	다자녀	41	80.4%	33	71.7%
v01 친구들 언어 문제	있다	28	54.9%	29	63.0%
	없다	12	23.5%	7	15.2%
	잘 모름	11	21.6%	10	21.7%
v02 자신의 언어생활	문제 없다	23	45.1%	11	23.9%
	조금 문제있다	27	52.9%	29	63.0%
	매우 문제 많다	1	2.0%	6	13.0%

		연령대			
		13세 이하		14세 이상	
		빈도	%	빈도	%
v03 하루 욕설 사용량	전혀 사용하지 않음	10	19.6%	6	13.0%
	5회 이내	23	45.1%	20	43.5%
	10회 이내	9	17.6%	7	15.2%
	20회 이내	6	11.8%	6	13.0%
	셀수 없음	3	5.9%	7	15.2%
v04 욕설 처음 사용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1	2.0%	1	2.2%
	초등학교 저학년	14	27.5%	5	10.9%
	초등학교 고학년	30	58.8%	22	47.8%
	중학교	0	.0%	12	26.1%
	고등학교	0	.0%	0	.0%
	기억나지 않음	6	11.8%	6	13.0%
\$V05 욕설 사용하는 상황	친구들과 대화 할 때	39	76.5%	41	89.1%
	후배와 대화할 때	3	5.9%	4	8.7%
	선배와 대화할 때	1	2.0%	3	6.5%
	어른들과 대화할 때	0	.0%	1	2.2%
	혼자 있을 때 혼잣말	14	27.5%	13	28.3%
	문자 메시지 보낼 때	3	5.9%	5	10.9%
	친구와 인터넷 채팅 때	14	27.5%	20	43.5%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 때	1	2.0%	4	8.7%
	인터넷 게시판 글 올리거나 댓글 달 때	3	5.9%	4	8.7%
	기타	7	13.7%	1	2.2%
\$V06 욕설 사용 이유	습관적으로	16	31.4%	23	50.0%
	화가 나서	26	51.0%	18	39.1%
	스트레스 때문에	13	25.5%	17	37.0%
	친근감의 표시로	8	15.7%	9	19.6%
	괜히 짜증나서	10	19.6%	5	10.9%
	남들이 사용하니까	3	5.9%	8	17.4%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	1	2.0%	3	6.5%
	친구들이 다 쓰기 때문에	6	11.8%	8	17.4%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려	1	2.0%	2	4.3%
	의사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	2	3.9%	11	23.9%
	기타	3	5.9%	1	2.2%

		연령대			
		13세 이하		14세 이상	
		빈도	%	빈도	%
v07 욕설 들 은 상대방 반 응	나와 비슷한 욕설을 했다	21	41.2%	21	45.7%
	나보다 심한 욕설을 했다	8	15.7%	5	10.9%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0	19.6%	11	23.9%
	친근감을 표시했다	8	15.7%	7	15.2%
	욕설하지 말라 충고했다	4	7.8%	2	4.3%
v08 욕설 사 용후 느낌	별 느낌이 없다	20	39.2%	22	47.8%
	마음이 후련하다	3	5.9%	4	8.7%
	조금 부끄럽지만 잊어버린다	5	9.8%	6	13.0%
	후회스럽다	9	17.6%	5	10.9%
	상대방에 미안한 느낌이었다	14	27.5%	9	19.6%
v09 친구로부 터 욕설 들을 때 느낌	별 느낌이 없다	19	37.3%	19	41.3%
	친근감이 느껴진다	4	7.8%	6	13.0%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16	31.4%	15	32.6%
	기분이 나쁘다	12	23.5%	6	13.0%
v10 친구외 다른 사람으 로 욕설들을 때 느낌	별 느낌이 없다	11	21.6%	9	19.6%
	친근감이 느껴진다	0	.0%	3	6.5%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10	19.6%	15	32.6%
	기분이 나쁘다	30	58.8%	19	41.3%

		연령대			
		13세 이하		14세 이상	
		빈도	%	빈도	%
\$V11 평소 사 용욕설	존나 계열	29	56.9%	30	65.2%
	씨발 계열	29	56.9%	27	58.7%
	개 계열	31	60.8%	26	56.5%
	병신 계열	19	37.3%	19	41.3%
	지랄 계열	23	45.1%	28	60.9%
	쌍 계열	10	19.6%	10	21.7%
	미친 계열	31	60.8%	32	69.6%
	쓰레기 계열	6	11.8%	8	17.4%
	무개념 계열	2	3.9%	6	13.0%
	생까다 계열	3	5.9%	4	8.7%
	엠창 계열	2	3.9%	7	15.2%
	쪽팔리다	3	5.9%	8	17.4%
	구라	18	35.3%	16	34.8%
	닥치다	8	15.7%	11	23.9%
	띠껍다	3	5.9%	5	10.9%
	씹다	1	2.0%	7	15.2%
	뒤지다	11	21.6%	10	21.7%
	빡치다	15	29.4%	19	41.3%
	야리다	1	2.0%	4	8.7%
	씨	23	45.1%	19	41.3%
니미	2	3.9%	4	8.7%	
니츠팔로마(욕)	4	7.8%	2	4.3%	
기타	4	7.8%	1	2.2%	

		연령대			
		13세 이하		14세 이상	
		빈도	%	빈도	%
\$V12 사용하 면안되는옥설	존나 계열	21	41.2%	23	50.0%
	씨발 계열	33	64.7%	26	56.5%
	개 계열	26	51.0%	19	41.3%
	병신 계열	31	60.8%	27	58.7%
	지랄 계열	28	54.9%	18	39.1%
	쌍 계열	14	27.5%	14	30.4%
	미친 계열	14	27.5%	15	32.6%
	쓰레기 계열	7	13.7%	10	21.7%
	무개념 계열	8	15.7%	9	19.6%
	생까다 계열	4	7.8%	3	6.5%
	엠창 계열	20	39.2%	13	28.3%
	쪽팔리다	3	5.9%	4	8.7%
	구라	8	15.7%	11	23.9%
	닥치다	7	13.7%	11	23.9%
	띠껍다	4	7.8%	3	6.5%
	씹다	7	13.7%	7	15.2%
	뒤지다	9	17.6%	11	23.9%
	빡치다	7	13.7%	10	21.7%
	야리다	6	11.8%	7	15.2%
	씨	8	15.7%	8	17.4%
	니미	19	37.3%	15	32.6%
니츠팔로마(욕)	9	17.6%	7	15.2%	
기타	6	11.8%	4	8.7%	
v13 옥설 뜻 을 알고 사용 하는 유무	알고 사용한다	26	51.0%	17	37.0%
	잘 모르고 사용한다	25	49.0%	29	63.0%
v14 옥설 습 득 경로	친구	32	62.7%	27	58.7%
	인터넷 매체	9	17.6%	14	30.4%
	형제, 자매	3	5.9%	2	4.3%
	부모님	3	5.9%	1	2.2%
	선배	3	5.9%	2	4.3%
	TV, 영화, 신문 등	1	2.0%	0	.0%

		연령대			
		13세 이하		14세 이상	
		빈도	%	빈도	%
v15 언어습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매우 그렇다	14	27.5%	12	26.1%
	대체로 그렇다	14	27.5%	21	45.7%
	별로 그렇지 않다	11	21.6%	10	21.7%
	전혀 그렇지 않다	3	5.9%	0	.0%
	모름	9	17.6%	3	6.5%
v16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사항	청소년들 비속어 신조어 사용	36	70.6%	31	67.4%
	가정 내 언어폭력	3	5.9%	8	17.4%
	외래어 외국어 사용	2	3.9%	0	.0%
	언론 방송의 지속한 표현	3	5.9%	6	13.0%
	사회지도층 막말 사용	5	9.8%	1	2.2%
	기타	2	3.9%	0	.0%
v17 청소년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사항	우려 없다	10	19.6%	7	15.2%
	해당 언어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 생김	7	13.7%	4	8.7%
	다른 세대와 소통 안됨	3	5.9%	6	13.0%
	올바른 한글 익히기 어려움	8	15.7%	6	13.0%
	개인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	21	41.2%	23	50.0%
	기타	2	3.9%	0	.0%
v18 부모님의 양육 태도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심	13	25.5%	18	39.1%
	내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주심	30	58.8%	21	45.7%
	부모님 말씀을 따르도록 강요함	8	15.7%	7	15.2%
v19 부모님께 욕설, 비속어 들은 경험	듣지 못했다	21	41.2%	23	50.0%
	가끔 듣는다	25	49.0%	20	43.5%
	자주 듣는다	5	9.8%	3	6.5%
v20 부모님에 사용하는 말	존댓말	14	27.5%	6	13.0%
	반말	9	17.6%	20	43.5%
	존댓말, 반말 모두	28	54.9%	20	43.5%
v21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듣지 못했다	43	84.3%	29	63.0%
	가끔 듣는다	7	13.7%	14	30.4%
	자주 듣는다	1	2.0%	3	6.5%

		연령대			
		13세 이하		14세 이상	
		빈도	%	빈도	%
v22 선생님께 욕설 들을 때 마음	나도 속으로 욕한다	4	11.4%	6	15.0%
	선생님 입장이 이해된다	3	8.6%	11	27.5%
	선생님은 욕설하지 말아야 한다	13	37.1%	8	20.0%
	별 생각이 없다	15	42.9%	15	37.5%
v23 수업 중 선생님이 사용하면 좋은 말	존댓말	17	34.7%	8	17.8%
	반말	6	12.2%	4	8.9%
	상관없다	20	40.8%	30	66.7%
	잘 모르겠다	6	12.2%	3	6.7%
v24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의 영향받음	예	25	49.0%	31	67.4%
	아니오	26	51.0%	15	32.6%
v25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있다	17	33.3%	14	30.4%
	없다	16	31.4%	19	41.3%
	잘 모르겠다	18	35.3%	13	28.3%
v26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있다	32	62.7%	15	32.6%
	없다	19	37.3%	31	67.4%
v27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느낀다	32	62.7%	28	60.9%
	느끼지 않는다	2	3.9%	3	6.5%
	잘 모르겠다	17	33.3%	15	32.6%
v28 욕설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1	2.0%	6	13.0%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다	35	68.6%	30	65.2%
	어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3	5.9%	1	2.2%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결의 실행한다	2	3.9%	1	2.2%
	학교에서 계획 세워 교육한다	4	7.8%	1	2.2%
	국가 사회적으로 바른말 사용 노력한다	3	5.9%	3	6.5%
	언론 방송이 지속적 자정노력한다	3	5.9%	4	8.7%

		가족유형2			
		독자		다자녀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공도읍	3	13.0%	6	8.1%
	대덕면	0	.0%	1	1.4%
	삼죽면	2	8.7%	2	2.7%
	안성3동	0	.0%	1	1.4%
	일죽면	1	4.3%	4	5.4%
	죽산면	17	73.9%	60	81.1%
가족유형	1인가구	0	.0%	0	.0%
	부모+1인자녀	12	52.2%	0	.0%
	부모+다인자녀	0	.0%	50	67.6%
	한부모+1인자녀	4	17.4%	0	.0%
	한부모+다인자녀	0	.0%	5	6.8%
	3대+1인자녀	7	30.4%	0	.0%
	3대+다인자녀	0	.0%	14	18.9%
	조손가구	0	.0%	5	6.8%
가족유형2	독자	23	100.0%	0	.0%
	다자녀	0	.0%	74	100.0%
v01 친구들 언어 문제	있다	15	65.2%	42	56.8%
	없다	3	13.0%	16	21.6%
	잘 모름	5	21.7%	16	21.6%
v02 자신의 언어생활	문제 없다	8	34.8%	26	35.1%
	조금 문제있다	12	52.2%	44	59.5%
	매우 문제 많다	3	13.0%	4	5.4%
v03 하루 옥설 사용량	전혀 사용하지 않음	2	8.7%	14	18.9%
	5회 이내	12	52.2%	31	41.9%
	10회 이내	3	13.0%	13	17.6%
	20회 이내	2	8.7%	10	13.5%
	셀수 없음	4	17.4%	6	8.1%
v04 옥설 처음 사용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1	4.3%	1	1.4%
	초등학교 저학년	3	13.0%	16	21.6%
	초등학교 고학년	13	56.5%	39	52.7%
	중학교	3	13.0%	9	12.2%
	고등학교	0	.0%	0	.0%
	기억나지 않음	3	13.0%	9	12.2%
\$V05 옥설 사용하는 상황	친구들과 대화 할 때	19	82.6%	61	82.4%
	후배와 대화할 때	3	13.0%	4	5.4%

		가족유형2			
		독자		다자녀	
		빈도	%	빈도	%
	선배와 대화할 때	2	8.7%	2	2.7%
	어른들과 대화할 때	1	4.3%	0	.0%
	혼자 있을 때 혼잣말	10	43.5%	17	23.0%
	문자 메시지 보낼 때	4	17.4%	4	5.4%
	친구와 인터넷 채팅 때	10	43.5%	24	32.4%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 때	2	8.7%	3	4.1%
	인터넷 게시판 글 올리거나 댓글 달 때	3	13.0%	4	5.4%
	기타	0	.0%	8	10.8%
\$V06 욕설 사용이유	습관적으로	10	43.5%	29	39.2%
	화가 나서	14	60.9%	30	40.5%
	스트레스 때문에	12	52.2%	18	24.3%
	친근감의 표시로	5	21.7%	12	16.2%
	괜히 짜증나서	3	13.0%	12	16.2%
	남들이 사용하니까	3	13.0%	8	10.8%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	3	13.0%	1	1.4%
	친구들이 다 쓰기 때문에	3	13.0%	11	14.9%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려	2	8.7%	1	1.4%
	의사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	5	21.7%	8	10.8%
	기타	1	4.3%	3	4.1%
v07 욕설 들은 상대방 반응	나와 비슷한 욕설을 했다	9	39.1%	33	44.6%
	나보다 심한 욕설을 했다	4	17.4%	9	12.2%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5	21.7%	16	21.6%
	친근감을 표시했다	3	13.0%	12	16.2%
	욕설하지 말라 충고했다	2	8.7%	4	5.4%
v08 욕설 사용 후 느낌	별 느낌이 없다	10	43.5%	32	43.2%
	마음이 후련하다	5	21.7%	2	2.7%
	조금 부끄럽지만 잊어버린다	1	4.3%	10	13.5%
	후회스럽다	1	4.3%	13	17.6%
	상대방에 미안한 느낌이었다	6	26.1%	17	23.0%
v09 친구로부터 욕설 들을 때 느낌	별 느낌이 없다	8	34.8%	30	40.5%
	친근감이 느껴진다	5	21.7%	5	6.8%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6	26.1%	25	33.8%

		가족유형2			
		독자		다자녀	
		빈도	%	빈도	%
	기분이 나쁘다	4	17.4%	14	18.9%
v10 친구외 다른 사람으 로 욕설들을 때 느낌	별 느낌이 없다	1	4.3%	19	25.7%
	친근감이 느껴진다	1	4.3%	2	2.7%
	기분이 나쁘나 곧 잊는다	9	39.1%	16	21.6%
	기분이 나쁘다	12	52.2%	37	50.0%
\$V11 평소 사 용욕설	존나 계열	16	69.6%	43	58.1%
	씨발 계열	14	60.9%	42	56.8%
	개 계열	10	43.5%	47	63.5%
	병신 계열	10	43.5%	28	37.8%
	지랄 계열	11	47.8%	40	54.1%
	쌍 계열	8	34.8%	12	16.2%
	미친 계열	13	56.5%	50	67.6%
	쓰레기 계열	5	21.7%	9	12.2%
	무개념 계열	5	21.7%	3	4.1%
	생까다 계열	4	17.4%	3	4.1%
	엠창 계열	3	13.0%	6	8.1%
	쪽팔리다	3	13.0%	8	10.8%
	구라	6	26.1%	28	37.8%
	닥치다	7	30.4%	12	16.2%
	띠껍다	3	13.0%	5	6.8%
	씹다	3	13.0%	5	6.8%
	뒤지다	7	30.4%	14	18.9%
	뽀치다	10	43.5%	24	32.4%
	야리다	2	8.7%	3	4.1%
	씨	12	52.2%	30	40.5%
	니미	2	8.7%	4	5.4%
	니츠팔로마(욕)	3	13.0%	3	4.1%
기타	1	4.3%	4	5.4%	
\$V12 사용 하 면안되는욕설	존나 계열	7	30.4%	37	50.0%
	씨발 계열	10	43.5%	49	66.2%
	개 계열	6	26.1%	39	52.7%
	병신 계열	16	69.6%	42	56.8%
	지랄 계열	11	47.8%	35	47.3%
	쌍 계열	8	34.8%	20	27.0%
	미친 계열	3	13.0%	26	35.1%

		가족유형2			
		독자		다자녀	
		빈도	%	빈도	%
	쓰레기 계열	4	17.4%	13	17.6%
	무개념 계열	6	26.1%	11	14.9%
	생까다 계열	3	13.0%	4	5.4%
	엠창 계열	13	56.5%	20	27.0%
	쪽팔리다	2	8.7%	5	6.8%
	구라	4	17.4%	15	20.3%
	닥치다	3	13.0%	15	20.3%
	띠껍다	2	8.7%	5	6.8%
	씹다	6	26.1%	8	10.8%
	뒤지다	6	26.1%	14	18.9%
	뽀치다	7	30.4%	10	13.5%
	야리다	3	13.0%	10	13.5%
	씨	3	13.0%	13	17.6%
	니미	12	52.2%	22	29.7%
	니츠팔로마(옥)	7	30.4%	9	12.2%
기타	2	8.7%	8	10.8%	
v13 욕설 뜻을 알고 사용하는 유무	알고 사용한다	9	39.1%	34	45.9%
	잘 모르고 사용한다	14	60.9%	40	54.1%
v14 욕설 습득 경로	친구	11	47.8%	48	64.9%
	인터넷 매체	8	34.8%	15	20.3%
	형제, 자매	0	.0%	5	6.8%
	부모님	1	4.3%	3	4.1%
	선배	2	8.7%	3	4.1%
	TV, 영화, 신문 등	1	4.3%	0	.0%
v15 언어습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매우 그렇다	5	21.7%	21	28.4%
	대체로 그렇다	8	34.8%	27	36.5%
	별로 그렇지 않다	6	26.1%	15	20.3%
	전혀 그렇지 않다	2	8.7%	1	1.4%
	모름	2	8.7%	10	13.5%
v16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사항	청소년들 비속어 신조어 사용	14	60.9%	53	71.6%
	가정 내 언어폭력	5	21.7%	6	8.1%
	외래어 외국어 사용	1	4.3%	1	1.4%
	언론 방송의 저속한 표현	2	8.7%	7	9.5%
	사회지도층 막말 사용	1	4.3%	5	6.8%

		가족유형2			
		독자		다자녀	
		빈도	%	빈도	%
	기타	0	.0%	2	2.7%
v17 청소년 언어 사용과 관련 우려사항	우려 없다	7	30.4%	10	13.5%
	해당 언어 모르는 계층과 괴리감 생김	2	8.7%	9	12.2%
	다른 세대와 소통 안됨	2	8.7%	7	9.5%
	올바른 한글 익히기 어려움	5	21.7%	9	12.2%
	개인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	7	30.4%	37	50.0%
	기타	0	.0%	2	2.7%
v18 부모님의 양육 태도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심	7	30.4%	24	32.4%
	내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주심	12	52.2%	39	52.7%
	부모님 말씀을 따르도록 강요함	4	17.4%	11	14.9%
v19 부모님께 욕설, 비속어 들은 경험	듣지 못했다	9	39.1%	35	47.3%
	가끔 듣는다	11	47.8%	34	45.9%
	자주 듣는다	3	13.0%	5	6.8%
v20 부모님에 사용하는 말	존댓말	5	21.7%	15	20.3%
	반말	5	21.7%	24	32.4%
	존댓말, 반말 모두	13	56.5%	35	47.3%
v21 선생님께 욕설 들은 경험	듣지 못했다	17	73.9%	55	74.3%
	가끔 듣는다	5	21.7%	16	21.6%
	자주 듣는다	1	4.3%	3	4.1%
v22 선생님께 욕설 들을 때 마음	나도 속으로 욕한다	0	.0%	10	17.5%
	선생님 입장이 이해된다	2	11.1%	12	21.1%
	선생님은 욕설하지 말아야 한다	5	27.8%	16	28.1%
	별 생각이 없다	11	61.1%	19	33.3%
v23 수업 중 선생님이 사용하면 좋은 말	존댓말	6	26.1%	19	26.8%
	반말	2	8.7%	8	11.3%
	상관없다	11	47.8%	39	54.9%
	잘 모르겠다	4	17.4%	5	7.0%
v24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투의 영향받음	예	12	52.2%	44	59.5%
	아니오	11	47.8%	30	40.5%
v25 사용 욕설에 대해 충고 받은 경험	있다	10	43.5%	21	28.4%
	없다	4	17.4%	31	41.9%

		가족유형2			
		독자		다자녀	
		빈도	%	빈도	%
	잘 모르겠다	9	39.1%	22	29.7%
v26 바른 언어 사용 관련 특별교육 경험	있다	11	47.8%	36	48.6%
	없다	12	52.2%	38	51.4%
v27 청소년 언어문화(욕설) 개선 필요성	느낀다	14	60.9%	46	62.2%
	느끼지 않는다	1	4.3%	4	5.4%
	잘 모르겠다	8	34.8%	24	32.4%
v28 욕설사용 줄이기 위한 방법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4	17.4%	3	4.1%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다	14	60.9%	51	68.9%
	어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1	4.3%	3	4.1%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결의 실행한다	1	4.3%	2	2.7%
	학교에서 계획 세워 교육한다	0	.0%	5	6.8%
	국가 사회적으로 바른말 사용 노력한다	2	8.7%	4	5.4%
	언론 방송이 지속적 자정노력한다	1	4.3%	6	8.1%

2024 안성시 청소년 연구

안성시 청소년 언어문화조사 보고서

역은이 허학범, 우수명_HS리서치센터

발행인 허학범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전화 031-676-0924

이메일 east.asyouth@gmail.com

홈페이지 easyc.kr